

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역발상 육아법

① 타고난 것을 단점으로 바라보지 말자.

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성격상 특징을 ‘기질’이라고 합니다. 기질은 짧은 시간 안에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. 아이에게 당장 바꿀 수 없는 점을 계속 지적하면 자존감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아이의 기질을 잘 관찰하고 타고난 것, 그 자체에 대해 인정해 준다면 아이의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② 아이의 기질에 맞게 적절히 반응하자.

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순한 아이는 욕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상황을 설명해주고,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느린 아이에게는 뭔가를 할 때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③ 부정적 말로 아이의 모습을 규정짓지 말자.

“우리 딸이 소심해서 그래”라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면 아이는 ‘난 소심한 성격이구나’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짓게 될 수 있으므로 무심코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

④ 작은 장점을 찾아 자신감을 높여주자.

단점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. 기질이 느린 아이라면 “왜 이렇게 느리니”라는 말보다 “너는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 장점이야”라고 이야기해주며 아이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.

출처 : 윤교육 생대연구소(<https://blog.naver.com/iamasmartmom>)



TIP

말이 유창하지 못하고,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어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했던 격려의 말입니다.

“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
훌륭한 소질이 있어.

그러니까 넌 분명,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.”